

(19.2%), 간(11.5%), 뇌(7.7%) 순서였다.

원격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AJC의 T병기, N병기, Ho의 T병기, N병기, 연령, 성별, 치료방법, 방사선 치료에 대한 관해율, 세포유형등을 분석해보았으나 Ho의 N병기에서만 NO, N1, N2, N3로 감에 따라 원격전이의율의 증가 양상을 보였다($p < 0.05$).

원격 전이 발생시기는 환자의 81%에서 방사선 치료 시작부터 2년이내에 일어나는 것을 보여 비교적 초기에 발생함을 알수 있었다. 원격전이가 발생한 26명의 환자에 있어서, 원격전이후 생존율을 살펴보면 중앙 생존치가 9개월이었고 1년생존율 40%, 2년 생존율 21.8%를 보여 비인강암 환자에서 일단 원격전이가 발생하면 그 예후가 불량함을 알 수 있었다.

— 16 —

Advanced T3 and T4 Glottic Carcinoma ; Yumc Experience(1980-1988)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Hyun Soo Shin, M.D., Hyung Sik Lee, M.D.,
Eun Ji Chung, M.D., Gwi Eon Kim, M.D.,
Juhn Kyu Loh, M.D., Chang Ok Sun, M.D.

Between January 1980 and September 1988, 68 patients with advanced T3 & T4 glottic carcinoma were treated with irradiation alone and irradiation + surgery in the Department of Radiation Oncology and ENT, Yo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mean age was 60 years old (range 33 to 79 years old). The 34 patients were treated with irradiation alone, and the remaining 34 patients with surgery and irradiation. Initial nodal presentation was 37% (25/68) ; 31% (11/34) in RT alone group and 41% (14/34) in combined treatment group. The minimum follow-up was 2years.

The local control rate after treatment was 59%

in RT alone group and 74% in combined treatment group ; 65% for node negative and 45% for node positive patients treated with RT alone ; 75% for node negative and 71% for node positive patients treated with combined treatment. The treatment failure was observed in 26 patients ; 13 patients for primary local failure, 6 patients for regional nodal failure, 5 patients for local and regional failure, 2 patients for primary failure and distant metastasis, and 2 patient for regional failure and distant metastasis. The overall 5-year survival rate was 59% ; 47% in RT alone group and 71% in combined treatment group ; 58% for node negative and 45% for node positive patients treated with RT alone ; 60% for node negative and 86% for node positive patients treated with combined treatment.

In conclusion, RT alone is prefer in patients with node negative as a treatment modality over combined surgery and RT since the treatment results were comparable and furthermore functional preservation could be achieved.

— 17 —

설암에서 DNA Ploidy의 예후인자로서의 중요성

예수병원 외과, 해부병리과*

박윤규 · 이삼열 · 박상희
정을삼 · 이광민*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과교실

정 헌 택

설암은 임상적으로 진행이 빠르고 그 예후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또한 병리학적 병기(stage)외에는 예후 측정을 위한 다른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저자들은 1983년부터 1988년까지 만 6년간 예수병원 두경부 중앙외과에서 경험한 설암환자 총 65명 중 유식세포 분석 분리기

(flow cytometry)에 의한 DNA ploidy 분석이 가능한 경우인 20명을 대상으로 임상 고찰 결과 다음과 같은 성적을 얻었으며 설암 환자 예후 측정에 있어서 DNA ploidy의 유의성을 알아 보았다.

1) 병기(stage)와 DNA ploidy의 상관 관계는 제 1기 환자 6명중, 4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이었고, 제 3기 환자 9명중 6명(66.7%)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사망한 제 4기 환자 2명은 모두가 비배수성(aneuploidy)이었다.

2) 조직학적 전이가 판명된 8명 환자의 임파선 분석 결과 5명(62.5%)에서 비배수성(aneuploidy)을 보였다.

3) 근접전이(Regional Metastasis) 및 재발이 없었던 12명의 환자 중 8명(66.7%)이 이배수성(diploidy)을 나타내었고, 근접전이 및 재발을 보인 8명의 환자 중 6명(75%)이 비배수성(aneuploidy)을 나타냈다.

4) 총 20명 환자 중 10명의 이배수성(diploidy) 종양환자에서의 S(Synthetic)-phase는 평균 27.6%이었으며 나머지 10명의 Aneuploidy 경우에는 평균 33.5%를 나타내었다.

— 18 —

Pilocarpine과 Atropine 투여가 백서 악하선조직의 방사선손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김광현 · 김진영 · 성명훈 · 김창원

두경부 악성종양의 방사선치료시 타액선이 조사야내에 포함될 경우에는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분비기능장애로 인하여 구강건조증이 초래되고 연하장애, 미각소실, 치아부식증 등이 병발하게 되고, 많은 환자들의 경우 영구적으로 타액선의 분비기능이 저하되어 평생동안 심한 불편을 겪게 된다.

타액선의 방사선조사시 분비과립이 많이 존재하는 장액성세포가 주로 손상을 받게 되므로, 저자들은 타액선내의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백서 타액선의 분비에 영향을 주는 pilocarpine 및 atropine을 투여한 후 방사선조사를 시행하여, 타액선조직에서 방사선에 의해 받는 손상의 정도를 검색하였다.

방사선조사는 18Gy를 단일조사하고 백서 악하선내의 장액성 세포의 변화를 광학현미경 및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ilocar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atropine 투여군에서는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오히려 증가하였다.

2) 대조군에 있어 18Gy를 조사한 7일후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의 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2주후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atropine 투여로 분비과립이 증가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결과 세포의 손상이 매우 심하여 조사 후 3일째부터도 장액성 세포내 분비과립의 감소가 나타났다. Pilocarpine을 투여하여 장액성세포내 분비과립이 소실된 상태에서 방사선조사를 한 경우는 장액성세포가 거의 정상소견을 보였으며 분비과립의 생성도 정상으로 회복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장액성세포내의 분비과립이 양과 방사선에 의한 세포의 손상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세포내 분비과립의 양을 변화시킴에 의해 방사선에 의한 타액선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사료되었다.

— 19 —

경부 복합 임파전이암 1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두경부외과학교실, 병리학교실*

이선희 · 진성민 · 최종욱
윤상애* · 원남희*

복합암은 내장기관의 원발병소에서는 보고된 바 있으나 두경부에서는 희귀한 질환이며 특히 복합 임파전이암은 아주 드물다.